

# 검찰, 송영길에 구속영장...宋 “정치적 기획수사”

### 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 6650만원 살포 의혹도...송 “전당대회 수사, 헌정사상 최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다섯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

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

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가 2021년 3월 30일 경선캠프에서 무소속 이상만의 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소 회장으로 부터 받은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조각처리시설 산·중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 기부금 및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은 8억2000만여원

에 달한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 4월 파리에서 귀국했고,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차례 자진출두가 무산된 뒤 이뤄진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친 후 “전당대회는 당내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인데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으로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본 역사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핵심은 피해자 구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카페에서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先 보상 後 구상”

### 민주당 지도부, 부산서 최귀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누겠느냐’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의 모두발언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 를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인데, 부산 수영구·진구·연제구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재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라며 “그중 가장 핵심은 선(先)보상 후(後)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잠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를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나쁜 악습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라며 “후천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 한다는 걱정이 참으로 많고 국내 상황이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무슨 조직 사건이니 이런 것을 들고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참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략적 목표로 국민의 삶, 국가 미래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뒤흔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임을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이낙연 “내년 1~2월에 큰 변화” 신당 창당 공식화

### 서울서 기자간담회...“이중생활 않겠다” 탈당 언급 후 시점은 안밝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내년 1월~2월 사이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본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추락을 막고 지속 가능한 국가로 되돌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1%대, 출생률은 0.6%대까지 떨어졌다”면서 “위기 상황을 되돌려놓을 ‘역량·신념·비전·책임의식’을 가진 정치 세력이 나와서 지금의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지금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국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저처럼 공직에 오랫동안 있었고, 많은 기회를 누린 사람으

로서 저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을 위한 탈당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한다. 이중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보다 국가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에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 또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 추락을 막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할 압박이 저한테 많이 집중됐던 건 사실이다. 무슨 그것만큼 큰 명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총선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계기이며, 총선이 지난다고 대한민국 위기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총선과 함께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면서 “그런 시기에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는 주역처럼 돼 있는 기성 정당들에게 총선 이후의 위기를 그대로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호남인들이 사랑했던 민주당의 정신을 가장 잘 간직하는 사람도 저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않고 따라다니고 그것이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남인들이 그리워하는 그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려놓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고 말했다. ‘제3시대 빅텐트’에 대해서는 “원래 대중정당은 일정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다”면서 “오히려 획일적인 것이 문제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당 이탄희·홍성국 불출마 선언

### 박병석 전 의장 등 현역 6명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가 가진 것도, 가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중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반대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주장해 온 바 있다. 이 의원은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

의, 양당 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 증오의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미래학 연구자’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우상호·오영환·강민정·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총 6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